



1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개최 37주년 기념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서울올림픽 정신 계승

### 도, 37주년 기념식 참석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 자치도의 비전이 서울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며 전국으로 확산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서울올림픽 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개최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올림픽 유치단, 대한체육회장, 정부 관계자, 체육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로 마련됐다.

서울에서 시작된 열정과 희망이 새로운 무대와 또 다른 여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퍼포먼스와 함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을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념식 참여를

계기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방위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단을 중심으로 대한체육회와 국제 스포츠 기구,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치 기반 구축과 국제 여론 형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 유치를 넘어, 지역 발전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이미 국제 대회 개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올림픽 비전을 내세워 세계 스포츠계의 주목을 이끌 생각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전주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하계올림픽이 전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전북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이 세계인과 함께하는 올림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과 정부, 체육계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 도약 '신호탄'

전주시, 24일 종합경기장 부지서 컨벤션센터 건립 기공식  
2028년 말까지 3000억원 투입...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전주시가 지난 60년 동안 전주의 중심지였던 종합경기장 부지를 미래 광역도시 전주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첫 삽을 뜬다.

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글로벌 전시·컨벤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공식은 전주가 미래 광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글로벌 마이스(MICE) 중심지이자 비즈니스 이벤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주의 큰 꿈을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하게 된다.

조선팝 타악 공연으로 문을 여는 이날 기공식은 △개식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홍보 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기공 퍼포먼스(터치 버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유명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홍지윤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컨벤션센터는 오는 2028년 말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만 3,000㎡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컨벤션센터는 1만㎡ 규모의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2실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출게 되며, 건물 외부에는 1만㎡ 규모의 다목적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인 호텔·백화점도 오는 2028년 컨벤션센터와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주)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호텔·백화점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주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국제회의와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컨벤션센터 주변과 연계한



전주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전주시청 제공)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전주 도심이 한층 더 활기찬 문화·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수시 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최종 행정 관문을 넘어섰으며, 이후 지난해 10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옛것을 보존하고 과거의 지혜를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은 '지붕산수' 콘셉트 설계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마이스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지난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에는 60여 년 역사 동안 전주의 중심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철거가 완료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60여 년 동안 전주의 중심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새로운 시작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추석 명절엔 '전북 우수 농특산물'

### 도, 19일부터 이틀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수용품 구매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우수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등 한지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16회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를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가위 큰장터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무진장축협, 어촌특화지원센터, 정보화마을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9개 단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판매부스 44개, 기관홍보 부스 4개, 라이브커머스 부스 1개 등 총 49개 부스가 운영된다.

사과, 배, 조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부터 건강식품, 가공식품 등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제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고물가 시대에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추석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가위 큰장터는 오프라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북 온라인 쇼핑몰인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와 우체국 이포스트(www.epost.go.kr)를 통한 온라인 장터를 함께 운영한다. 온라인 장터는 10월 20일까지 이어져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27TH

김제 지역축제

2025. 10.08. Wed

2025. 10.12. Sun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일원 벵골제 중심

2025. 10.08. Wed 2025. 10.12. Sun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일원 벵골제 중심

GIMJE HORIZON FESTIVAL